

전남도, 세계 자연유산 '갯벌' 보전... 9228억 사업계획 수립

갯벌 보전·관리 5개년 종합계획 체계구축·관광 활성화 등 4개 분야 2.7조 생산효과·1740명 고용창출



신안 중도 갯벌

전남도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전남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전남도 갯벌 보전·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는 종합계획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전남 갯벌' 비전 실행을 목표로 마련됐다. 2024년 준비 기간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9228억원 규모의 4개 분야 29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4개 분야는 '갯벌 보전·관리 체계 구축',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체계 구축',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 '갯벌 우수성 확보와 협력체계 구축'이다. 분야별로 '갯벌 보전·관리 체계 구축'은 보성·순천 여자만과 신안·무안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갯벌생명

관 건립, 해양생태계 서비스 직불제 등 10개 사업에 5840억원을 들여 체계적 보전·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체계' 구축은 7개 시·군 29곳에 1660억원 규모의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을 비롯해 5개 사업에 355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자연 퇴적화, 자연습지 생태 모델화 사업 등 갯벌 유형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해 어업의 지속성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전남 갯벌의 세계유산 축전, 탐조관광, 생태마를 지정 등 6개 사업에 245억원을 들여 전남 갯벌의 해양생태적 가치와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갯벌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갯벌 우수성 확보와 협력체계 구축' 분야는 전남 갯벌 농·어업유산 등재, 한국 갯벌도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8개 사업에 88억원을 들여 전남 갯벌의 세계화와 가치를 높인다는 방

침이다. 전남도의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지역 내 2조7216억원의 생산 효과와 약 174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내년 한 해를 단위 사업별 행정절차와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본 사업은 2025년부터 예산투자계획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전남 갯벌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전남 갯벌의 가치 증진과 지역 발전이라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남으로써 대한민국 갯벌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21년 7월 전남 갯벌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전남도는 2022년 10월 해양수산부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신안에 유치했다.

/전남=영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주시 소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총력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소 럼피스킨병(LSD)의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소 사육농가 전체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LSD)이 첫 발생한 이후, 경남과 경북지역을 제외한 6개 시·도, 22개 시·군에서 총 64건이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차단 방벽이 절실한 시기이다. 시는 럼피스킨병 백신이 31일 공급됨에 따라 접종지원 9개반을 편성해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5만 7000두에 대해 이달 10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영주(경북)=김동국 기자 kd97677@

창원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창원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일반형 일자리 159명(전일제 118명, 시간제 41명), 복지형 일자리 62명 등 3개 분야에서 총 221명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창원시 거주 등록 장애인으로 미취업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등 준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김해시 울릉도 여객 노선 시민 할인

김해시와 ㈜대저해운은 포항~울릉도~독도 여객 노선의 운임을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할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광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울릉도 방문 시 주중, 주말 할인을 적용 시 좌석에 따라 1만5,900원에서 최대 8만5,000원(편도 기준)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김해시민이 관내 관광시설 이용 시 제공되는 할인 서비스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울릉도 여행 시 직접적인 여행경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김해(경남)=장병호 기자 metrobusan1@

여수시 여수산단 작년 매출액 111.5兆

전남 여수국가산단의 작년 매출액은 111조5094억 원, 수출액은 521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매출액 77조 9555억 원, 수출액 395억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 2022년 여수산단의 지방세 납부액은 2017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779억 원이 증가했고, 국세 납부액은 9조 409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공발협)는 여수국가산단단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 산업 동향 및 각종 현황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가덕도신공항, 시행령 개정 창원·거제시 개발 '청신호'

주변개발지역 10km 이상 추가 확대 트라이포트 배후지역 기초법령 마련



가덕도신공항 건설 조감도.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 예정지역을 반경 10km 이상에서도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창원·거제지역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가덕도신공항법은 2021년 11월 5일 개정된 이후 경남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해상 공항의 지리적 특수성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16일 공항개발 예정지역 반경 10km 범위 밖에서도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세부적인 지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이후 경남도는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가덕도신공항 주변지역인 창원시,

거제시가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 왔으며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는 경남도에서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가덕도신공항 배후지역 개발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마무리되고 트라이포트 배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초 법령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 의료서비스·관광자원, 몽골 전역 전파

부산경제진흥원, 다큐 촬영 지원

부산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와 관광 자원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몽골 현지 방송을 통해 몽골 전역에 전파될 예정이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21일~24일 몽골 주요 방송 관계자 38명을 초청해 부산의 의료기술과 관광자원을 담은 '부산 의료관광과 웰니스 자원' 다큐멘터리 촬영을 지원했다.

몽골 디지털개발부 오츠랄 니암오소르 장관이 인솔한 방문단은 부산의 의료기관과 웰니스 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했으며, 이런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몽골 전역에 올해 안에

방송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는 지난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한 '부산 첨단 의료기술 홍보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부산경제진흥원과 몽골 Malchin TV가 함께 준비해왔다.

4일간 부산 탐방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는 부산을 찾는 몽골 관광객을 위해 부산의 첨단 의료기술을 소개하고 바다와 온천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을 소개한다. 몽골 디지털개발부 오츠랄 니암오소르 장관을 비롯해 방송사 대표 등 방송 관계자 38명이 부산의 의료 기관과 웰니스 시설을 직접 방문, 체험하는 콘텐츠를 다큐멘터리에 담았다. /부산=이도식 기자

섬진강, 연어회귀 늘어... 생태계 회복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연어 방류 235마리 모천 회귀... 전년비 410% ↑

섬진강이 연어 자원 회복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품은 하천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최남단 연어 산란장인 섬진강에 지난 10월 10일부터 어미 연어가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올해 섬진강으로 돌아온 연어는 지난해보다 이틀 늦었지만 10월 말까지 235마리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6마리보다 189마리(410.8%)나 증가한 것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연어 자원 조성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1998년부터 어린 연어를 방류하고 있다.

올해 돌아온 연어는 3~5년 전에 방류한 어린 연어가 북태평양 베링해와



전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이 포획한 연어. /전남도

알래스카 연안 등지에서 60~100cm 크기로 성장한 어미 연어다. 산란을 위해 태어난 고향 섬진강으로 모천 회귀한 것이다.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섬진강 연어 회귀량을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연어 회귀율과 연령 등을 분석해 연어 연구와 방류에 활용할 방침이다. /전남=영수영 기자

금감원-부산시, '해양금융컨벤션' 개최

해양금융 최신 동향·부산 발전전략

금융감독원은 31일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2023 부산 해양금융컨벤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된 부산 해양금융컨벤션은 해양금융 분야 최신 동향 및 해양금융 중심지 부산의 발전전략을 다루는 국제행사다. 2021년부터는 유사 성격의 부산 지역 해양금융 행사들과 통합 후 확대 개편해 부산 해양·금융위크 기간 중에 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양산업을 지원하는 해양금융이 단순한 대출, 차입을 통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에서 벗어나 산업과의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국제적인 ESG 기준에 적합한 '맞춤형 종합금융서비스'로 변화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무역의 99%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해양산업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